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교과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서 '온리원 빛가람' 주제로 개최 공연·체험·마켓 등 프로그램 다채... 지역 화합·경제 활성화 기대

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버블·별론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되며, 초대기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플리마켓, 사회적경제 기업 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



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제10회 서창역새축제, 16일 '노을 개막식'

오후 5시 영산강변서 개막무대... 도심 속 힐링축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노을이 물드는 시각에 맞춰 영산강변 일대에서 제10회 광주서창역새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서창역새축제는 시민들의 사랑 속에 광주 유일의 자연경관축제이자 도심 속 힐링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개막식은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았다. 무대는 '유람선' 콘셉트로 꾸며져 역새와 노을, 영산강이 어우러지는 가을 감성 여행의 시작을 상징한다.

개막 퍼레이드에는 주민 300여명과 10개 지역단체가 참여한 은빛 역새길을 따라 행진하며 유람선의 항해를 알린다. 어린이합창단 부르는 창작곡

요 '노을'이 축제의 막을 열고, 참석자 전원이 오색 스카프를 흔들며 역새축제 10주년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로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을 표현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창역새축제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참여와 사랑으로 도심 속 생태여행의 상징이 됐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문화축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힘찬 첫 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10회 광주서창역새축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나눔누리숲 일대)에서 진행되며 ▲나눔누리 노을 530 ▲사운드스케이프 체험 ▲SG다이닝 ▲명파리대회 ▲부박부박역새 탐험대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석우 기자

전라남도는 가을철 지역축제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도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모이는 가을철 축제와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지만,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 남 도 에 따 르 면 지 난 5 년 간 (2020~2024년) 9~11월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평균 24건으로 전체 식중독

전남도, 축제·행사장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온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서 식음료안전센터 운영

발생 건수의 약 40.7%를 차지했다. 축제나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실외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

서 식음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1~26일)와 해남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10월16~19일)에서 식음료안전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박람회 식음료안전센터에 식품위생감시원 163명이 투입됐으며, 매일 행사장 식음료시설

37개소(식당 24, 카페 및 스낵 6, 푸드트럭 5, 편의점 1 등)에 대해 위생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부패·변질된 식품,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중독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조리식품은 즉시 수거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이체금 의료급여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재난지수 300이 넘는 피해를 입은 자 중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북구, 침수 피해 주민 대상 '의료급여 확대 적용' 나서

'12억 7천여만 원' 투입해 500여 명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예정

사람의 유족,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주민 등이다.

지원내용은 침수 피해 주민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진찰, 입원, 수술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부터 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된 지난 7월 16

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 중 병원·약국을 이용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이 3개월 늘어나 내년 1월 15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총 12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500여 명의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여름 발생한 침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공공 시설에서 한글을 배우는 만학도 어르신들의 한글 실력을 겨루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성인 문해 글짓기 한마당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노년층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남구, 16일 '한글 만학도 실력 뽐내기' 개최

글짓기 대회에는 남구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양지종합사회복지관과 주월2동·진월동·대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5개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 5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 교육기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어르신 90여명이 한글 초·중급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대회는 우리말 글짓기와 우리글 바로 쓰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말 글짓기 부문은 주제와 소재, 형식, 분량의 제한 없이 펼쳐진다. 생애 처음으로 교육기관에 가던 날의 모습이랄지 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메시지에 답장 작성 등 일상의 행복 경험과 자녀 및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을 한글로 표현하면 된다.

우리글 바로 쓰기 부문은 시 작품 4개 가운데 1개를 선택, 예쁜 글씨로 옮겨 쓰기를 하면서 글자의 균형성 및 맞춤법, 피어쓰기 등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시 작품 4개는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본다'와 이혜인 시인 '오늘도 시간은', 도중환 시인 '바람이 오면', 안도현 시인 '가을 열서'이다.

남구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해 대상 수상자 1명과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특별상 3명 등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RE100 산단 전기요금 50% 이상 할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와 함께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전남 서남권 일원을 국내 1호 RE100 산단 시범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전지 국산 공급망 완성을 위해 이차전지 원료 소재 공급지역인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요청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솔라시도 중심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을 위해 국가 간척지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활용 등의 등을 요청했다.

지속하는 이상고온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피해가 크게 늘어난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조사 뒤 복구비 지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도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과 에너지·농정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필수 현안"이라며 "도민이 염원하는 주요 사업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